

[중앙대 박명수(朴命洙) 총장]

“개교 1백돌 「드래곤 2018」 세계 1백대 대학에 꼭 진입”

‘의에 죽고 침에 살자’ 라는 교훈 아래 1918년 개교된 중앙대학교는 21세기를 맞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특성화 분야로 IT, BT, CT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력에 집중하고 있다. 본지는 박명수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교 1백주년을 맞는 2018년에 세계 1백대 명문사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드래곤 2018」의 푸른 설계를 들어본다.



■ 대담 : 李光榮(전북대 초빙교수/본지 편집위원)
■ 일시 : 7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중앙대학교 총장실

■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원래 과학과 기술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과학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을 일컫는 말이고, 기술은 과학적 지식이나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방법 또는 활용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첨단기술의 원천이 되고, 고도의 기술은 첨단과학을 가능케 하여 상보적이며 상승적으로 발전해 왔기에 이에 대한 구분이 따로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르기를 현대 과학 기술은 “신이 내린 최고의 축복”이라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수명연장, 농업 혁명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일일생활권 실현 등 인간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한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혜택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질과 자원에 대한 과도한 경쟁적 소비,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생명공학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관의 문제, 과도한 과학기술의 세분화·전문화에 따른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명의 총체적 이해 결여 및 과도한 과학기술의 경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기초과학교육의 부재라는 문

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과학교육 개선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엇보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성찰과 조화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 BT, CT 집중연구

■ 중앙대학교의 연혁과 교육이념은.

중앙대학교는 1918년 민족수난기의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민족의 장래를 내다본 선각자, 고 승당 임영신박사에 의하여 소중하게 설립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의에 죽고 침에 살자’는 교훈에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와 같은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지식과 교양, 인성과 덕성을 고르게 겸비한 인재 양성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돕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평화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의 기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요.**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80~90년대 이후 대학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종합대학의 경우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현실적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다양한 학문 분야의 18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기본운영 방침은 중앙대학교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이양하여 자율적 운영을 통한 대학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학문 분야의 발전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에 대학본부의 업무 중 상당부분을 단과대학으로 이양하였으며, 9개의 학과를 '선도' 특성화 학과로 지정하여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BT, CT 분야를 '전략 특성화 영역'으로 선정하여 관련 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력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의 21세기 비전,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인지요**

21세기의 환경은 산업사회를 탈피하고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되리라는 예측



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학문간, 학제간, 국가간 새로운 분화와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학사회는 이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대학이 사회환경이 요구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교육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교육은 물론 국제화를 위한 어학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산학협동을 통한 실용적 연구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통합된 사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대학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특성화 분야로 IT, BT, CT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력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갖추도록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정보통신연구원과 생명의학연구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등이 얼마 전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장점인 문화 예술 분야의 콘텐츠를 정보통신 분야와 접목시키고 또한 우리대학교의 전통적 강점인 의·약 분야와 기초과학 학문분야의 연구력을 결집시켜 세계적인 연구 집단을 육성토록 할

것입니다.

「**드래곤 2018**」 **세계 과시**

■ **드래곤 2018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Dragon 2018은 본교의 상징인 청룡과 중앙대학교 개교 1백주년인 되는 2018년을 조합시킨 용어로서 중앙대학교의 발전 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그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최종목표는 2018년 세계 1백대 명문사학으로의 도약입니다. 중간 목표로 2010년 국내 3대 명문사학 진입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 연구, 환경 분야별로 '중앙인' 양성사업, '중앙팀' 육성사업, '중앙터'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다양한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그 내용은 계속 보완될 것입니다.

Dragon 2018은 지금까지 수립되어 온 다양한 발전계획 중 실행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실행하도록 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Dragon 2018은 재단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개교 1백년이 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중앙대학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해서 순수학문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학부제는 순수한 의미에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학부제를 통해 학부 과정에서 다양하고 폭 넓은 학문 분야를 접함으로써 학생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 분야를 발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 학문을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부제를 통해 개인의 적성보다는 취업률이나 사회 인지도가 높은 전공 분야만을 고집함으로써 일부 순수학문 분야가 크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 내에 계열, 학부, 학과 등 다양한 모집단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순수학문 분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공은 독립 학과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유사전공은 학부제로 통합하여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의 많은 학과들은 계열로 통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과목을 수강한 후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소질은 고려치 않고 입시 점수에 의해 학과를 선택하는 비교육적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도 보안을 통해 모집



단위 광역화의 첨병역할을 한 학부제의 긍정적 의미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 대학의 과학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기초과학 발전 뿐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소견이 있다면.

과학을 포함한 기초학문 분야는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서도 호응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기초학문 경시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고유의 특징을 살린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교양과정화 하여 전교생이 이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백화점 식으로 전공이 나열된 기존의 대학 틀을 깨고 특성화된 대학으로서의 중앙대학교를 단기간에 완성하고자 합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본교에서는 인성과 창의성 중심의 교양교육, 전문인 양성을 위한 복합 학문체제,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학문과 응용 분야간의 조화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요직 과감한 등용을...

■ 국가 발전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 우수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견해는.

젊은 학생들이 이공계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고 이를 기피하는 현상은 매우 우려되는 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도 이공계 학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현상을 해소시키려면 무엇보다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층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고시 만능 풍조, 고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분상승과 이에 따른 프리미엄 등이 어떤 형태로든 해소되어야 하고 정부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 꺾는 것이 유일무이한 출세 수단이고, 사농공상이라 하여 직업을 구분하던 의식이 현대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런 일입니다.

또한 여러 국가적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중요 직책에 테크노크라트형의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하며,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과학기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합쳐질 때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과학 및 이공 분야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들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 사이의 높은 담을 헐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인문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들어와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은 모든 학문 분야에 접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네트워크의 발달은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무한대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도 과학기술을 하나의 도구로서 또는 파트너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과학이나 공학, 의·약학 등의 과학기술도 인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식만을 위한 학문의

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설명드린 인성과 창의성 중심의 교양 교육과 학제간 교류를 강조하는 복합학문 체제를 본교에 도입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전공 뿐만 아니라 타 계열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대학이 추구해야 할 첫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 화장 과감한 탈피를...

■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초입까지 발전해 온 배경에는 많은 산업 일꾼들이 흘려온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까지 겉모습 화장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심장과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심장과 뼈대,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의 기반이 든든해야 첨단 기술이 빛을 볼 수 있으며, 사회가 안정되고 어떤 역경이 닥쳐도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①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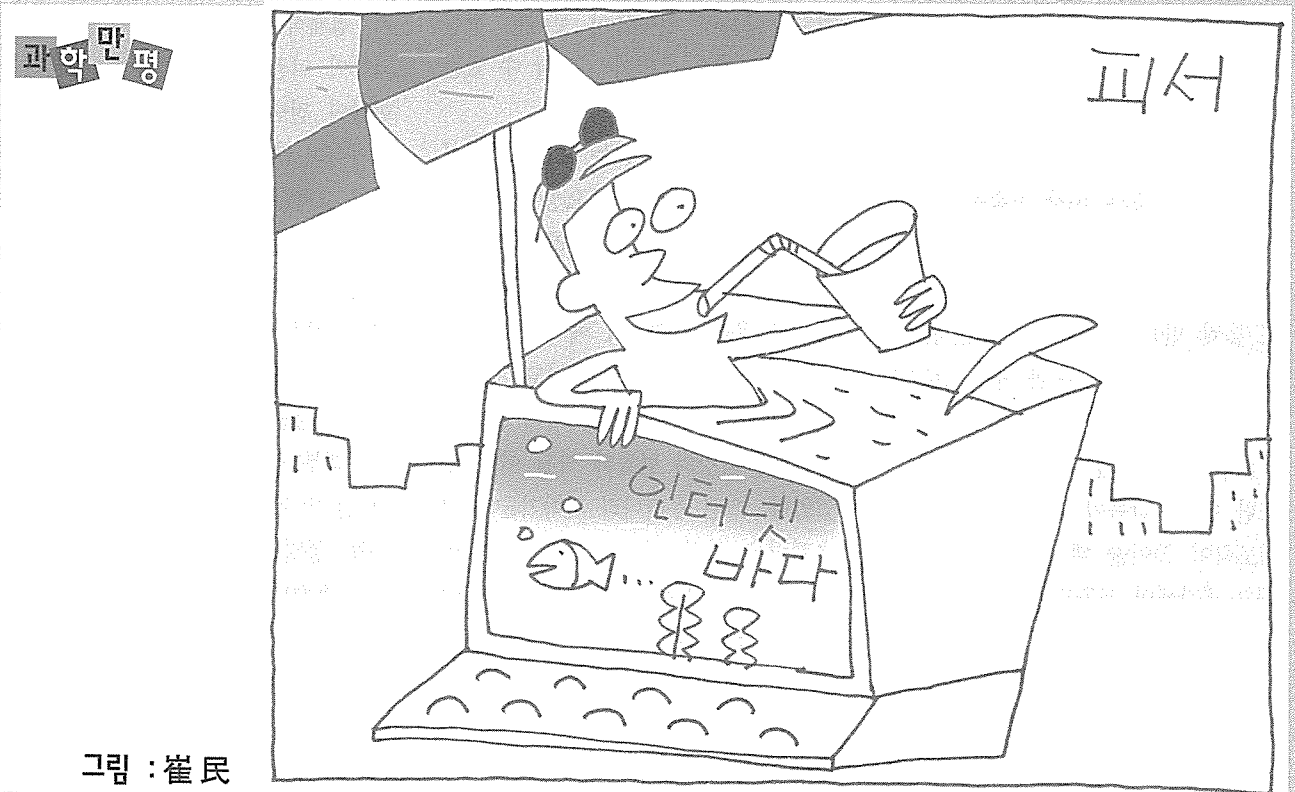


그림 : 崔民